

## 교회소식

< 담임목사 방송설교 >

- CBS TV(채널 68) 월 오후 2:00 ~ 2:30
- 극동 방송(FM 93.3MHz) 수 오후 5:30 ~ 6:00
- CBS 라디오(FM 91.7MHz) 금 오후 12:30 ~ 1:00



### ◎ 성탄축하예배 ◎

12월 25일(토) 오전 9시, 11시

### ◎ 2021 제직세미나 ◎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 \* 일시 - 20일(월) ~ 22일(수) 저녁 7시 30분
- \* 강사 - 심수명 목사(한일교회 담임, 칼빈대학교 상담학 교수)
- \* 22일(수) 수요일 예배는 제직세미나로 대신합니다.

### [알림]

1. 교회 리모델링 완공 감사예배 - 26일 주일 2부, 3부 예배시
2. 예결산 제직회 - 26일 주일 3부 예배 후 / 본당
3. 2022년 교회 달력 배부 - 가정 당 한 부씩 / 사업장 - 사무실에서
4. 장로·안수집사·권사 은퇴 및 명예권사 추대식 - 26일(주일) 오후예배시 / 본당
5. 2022년 <365일 릴레이기도> & <간단 장식> 신청 - 26일(주일)까지 / 사무실 앞 게시판
6. 목장 방학 - 이번 주부터 목장 방학입니다.
7. 동대전제일노회 여전도연합회 - 20일(월) 오전11시 / 조치원교회

### 섬기는 분들

▲월요당직 : 오상욱 목사

담임목사	조상용	원로목사	김주원	시무장로	김덕현	배정만	홍순영	이원명	송경호
부목사	고윤철	오상욱	김종명		윤종명	황덕순	임현성	김수중	임인성
전도사	김명순	조정욱	전상순		전용주				
교육전도사	정선교(고등)	김민준(중등)	현기훈(초등)	원로장로	이인창	편봉달	정대용	최영일	윤재룡
	김태욱(유년)	이정아(유치)			안철호				
직원	박연희(사무)	김현철(관리)		은퇴장로	김영한	장순석	김기성	권소열	송은규
어린이집	주경애(원장)	김경희	권영은	박선희	김효진	정기조			

교회주소 - 34532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748번길 40 (가양동) FAX 632-0281  
www.jungbu.or.kr / 사무실 622-9991,2 / 큰술어린이집 622-9995 / 카페(필그림) 625-9991

Since 1958. 09. 15

2021. 12. 19 (NO. 63-51)



### 우리의 비전

위대한 교회  
영광스런 교회를  
보게 하소서!

### 4대 사명

-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 성도를 제자삼는 교회
-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 8대 사역

1. 예배 사역
2. 목장 사역
3. 가정 사역
4. 기도 사역
5. 제자 사역
6. 미래 사역
7. 복지 사역
8. 전도 사역

도심 속 하나님의 나라  
**세종중부교회**  
(담임목사 하우진)  
2018. 7. 7 설립

세종시 보람동  
금강베네치아 5층  
010-7770-8291

### 주 일 예 배

1부 / 오전 7:00

2부 / 오전 9:00

3부 / 오전 11:00

* 입례송	성도여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회중찬양	선한 능력으로
참회기도	다같이
대표기도	심재성 집사(1부) / 배정만 장로(2부) / 이원명 장로(3부)
찬양	예루살렘(2부) / 할렐루야(3부)
성경	수 14:6-15

### 갈렙처럼 나이 들기

조상용 담임목사

헌금	347장
광고	인도자
* 공동체고백	사명선언문
* 폐회송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축도	조상용 담임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안내

<b>주일4부</b> 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b>주일오후</b> 성경읽기예배	오후 4:00 (본당)	<b>수요일예배</b>	1부/오전 10:00(본당) 2부/저녁 7:30(중예배실)
* 찬양: 드림 찬양단		* 찬양: 주찬양단		<b>2021 제직세미나</b>  오전 1부 예배는 제직세미나로 대신합니다.	
* 기도: 송혜은 자매		* 기도: 진재주 집사			
* 설교: 김종명 목사		* 설교: 김종명 목사			
* 성경: 눅 17:26-27		* 성경: 창 29-31장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늘 함께하시네”			

<b>새벽기도회</b>	새벽 5:00 (본당)	<b>목요영성기도회</b>	저녁 8:00 (본당)
- 담당 교역자 -		* 찬양: 아이노스 찬양단	*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 다음주 봉사안내

주일오전	1 부	홍근성 집사	안내위원		
	2 부	이원명 장로			
	3 부	송경호 장로			
주일새벽	금 주	이종란 권사	식당봉사	금 주	
	내 주	임명숙 권사		내 주	
주일오후	내 주	구회선 집사	주차위원	나승문 김상복 김종현 김태순 박노태 이길천 이종규 우희정 임춘수	
	1 부	서정자 권사			
수요일예배	2 부	최영란b 집사	차량운행	1호/ 채기병 집사 010-5579-9103 2호/ 이본구 집사 010-8281-3779 3호/ 정구훈 집사 010-3402-5364 4호/ 유창웅 집사 010-6407-8515 5호/ 이율성 집사 010-9033-5338	

## 예배시간 안내

주 일	1부 예배	오전 7:00	유아부	오전 11:00	수	1부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9:00	유치부			2부 예배	저녁 7:30
	3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		목	목요영성기도회	저녁 8:00
	4부 예배	오후 2:00	초등부				
	베데스다	오전 9:00	중등부	오전 9:00 오후 2:00	매일	새벽기도회	새벽 5:00
	오후예배	오후 4:00	고등부				
			청년부				

## 기도 게시판

### 365일 릴레이 기도 담당

월 (20일)	최정숙 고한례 장영애
화 (21일)	송정숙
수 (22일)	공종호
목 (23일)	김종명 김명순
금 (24일)	오상옥 조정옥
토 (25일)	이종옥 유창웅 김정식 송순례
주일 (26일)	정영자

※ 기도담당자는 하루 한 끼 금식하고 한 시간 이상 집중 기도해 주세요!

### 기도제목

1.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하소서! (마 16:18)
2.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9:20)
3. 365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14)
4.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요 17:22)
5. 도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 5:16)

### 중보기도사역

요일	기도 내용	담 당	시 간	장 소
월	교회와 개인을 위해	한혜숙 권사	오전 11시	기 도 실
화	교회, 선교, 중보, 개인을 위해	이영숙 권사	오전 10~12시	기 도 실
수	나라와 민족, 교육 부서를 위해	이연옥 집사	오전 11~12시	기 도 실
목	성령의 능력과 치유, 회복을 위해	목요영성기도회	자정 8시~10시	본 당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이종옥 권사	밤 12시~4시	한 나 방
금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이성희 권사	오후 2~3시	기 도 실
주일	목사님과 주일 예배를 위해	홍선덕 권사	오전 10~11시	기 도 실
119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119 문 자	문자 전송 시	처소에서

### 사명선언문

대전중부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가정을 치유하며,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위대하고 영광스런 주님의 교회가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 게시판

## 주간 성경읽기

날짜	19일(주일)	20일(월)	21일(화)	22일(수)	23일(목)	24일(금)	25일(토)
성경	신16-18	신19-21	신22-24	신25-27	신28-30	신31-32	신33-34

## 대전중부교회 성도상(像)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12월 행사 안내

- \* 6일(월)~8일(수) / 기도의 십일조
- \* 12일(주일) / 예결산 위원회
- \* 20일(월)~22일(수) / 제직세미나

- \* 25일(토) / 성탄축하예배
- \* 26일(주일) / 예결산 제직회,  
수료 및 졸업예배
- \* 31일(금) / 송구영신예배

# 모임안내

## 새가족 성경공부

구분	시간	담당자	기간	장소
새가족반	2, 3부 예배 후	오상옥 목사	4주	당회실

## 평신도 신앙훈련

구 분	내 용		기간	사 역 목 표	담 당 자
신앙성장 과 정	학습 · 세례 교육		3주	신 앙 교 육 강 화	담 당 자
	교 리 생 활 공 부		1년	1 학 기 : 교 리 편 2 학 기 : 생 활 편	담 임 목 사
	가 정 사 역 학 교		13주	행복한 가정 만들기	김 혜 경 사 모
	제 자	제자반	1년	그리스도의 제자양육	교 구 목 사
	훈 련	사역반	1년	사 역 자 양 육	담 임 목 사
	목 자 훈 련		매주	목 자 훈 련	각 교구 교역자
	양 육 1 단 계		5주	공 동 체 를 통 한 하나님 경험하기	담 당 자
	회 복 수 양 회		1박2일	내 적 치 유	담 당 자
	양 육 2 단 계		8주	성숙한 성도의 삶 경 험 하 기	담 임 목 사
	중 보 기 도 학 교		6주	기도 헌신자 훈련	담 당 자
L M T C	평신도 선교훈련		24주	단기선교 준비 과정	담 당 자
청춘 대학	다양한 교육활동		4년	노년의 행복한 삶	조정옥전도사
아기 학교	주간 아기 교육		12주	신앙적인 전인교육	김명순전도사
목요 전도	전도훈련·지역전도		매주	지 역 복 음 화	고 윤 설 목 사

## 찬양대

구분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주일새벽	시온	이종운	김예원
주일 1부			
주일 2부	예루살렘	이규인	피/ 임지희 오/ 문정애
주일 3부	할렐루야	장지이	피/ 김영미 오/ 임형선

구분	반주자
주중새벽	이성희 김경희
주일오후	강주연
수요 1부	문정애
수요 2부	김경희

## 코로나 방역단계에 따른 교회생활 안내

1. 주일 2,3,4부(청년)예배 좌석 30%이내 대면예배와 온라인예배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2. 새벽예배, 주일1부, 주일오후, 수요일예배, 목요일성기도회는 좌석 30%이내 대면으로만 드립니다.
3. 주일학교는 좌석 30% 이내 대면예배로 드립니다.
4.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안전한 교회생활과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두손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선교 및 돕는 기관

#### ♣ 파송선교사

- 김정배, 이명국(재현, 은희, 상희) / 태국 · 싱가포르
- 이종현 / 국내 몽골이주민 사역(부천)
- 윤명호, 최수옥(인아, 기웅) / 태국
- 조나단, 김은샘(예지, 혜성, 하라, 이안) / 인도네시아
- 버여, 총통체책 / 몽골
- 김은영(주현, 하현, 성현) / 일본
- 안덕준, 이안나(하민, 하진, 하온) / 베트남
- 김현숙 / 태국

#### ♣ 협력선교사 및 선교기관

- 천강민 / 몽골 · 장석현 / 태국 · 이수현 / 필리핀
- 김재정 / 태국 · 김도형 / 태국 · 장천득 / 캐나다
- 임태호 / 태국 · 박정선 / 태국 · 오세연 / 남아공
- 이성울 / 키르기스스탄 · 총회세계선교회(GMS)
- 싼띠팍선교회(SMI) · 일본아가페선교회(AMJ)

#### ♣ 후원교회 및 기관

- 가야곡중부교회 · 충신대학교
- 옥천각계교회 · 대전신학교
- 대전시기독교연합회 · 동대전중학교
- 대전성시화운동본부 · 가양중학교
- 두란노아버지학교 · 명석고등학교
- 주바라기선교회 · 내륙동 노인회
- 대전기독교방송 · 가양2동 노인회
- 대전국동방송 · 신도 노인회
- 기독교임즈 · 더퍼리 노인회
- 내륙 남,녀 노인회

## 지난 주 말씀 요약

### 죽고 싶을 만큼 삶의 의욕이 사라질 때(왕상19:1-8)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코로나19로 인해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우울감에 빠져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우울감을 또 다른 용어로 ‘자기연민’이라고 한다. 자신을 한 없이 불쌍히 여기거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자기연민은 죽고 싶을 만큼 삶의 의욕을 사라지게 해서 일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오늘 본문에 자기연민에 빠진 한 인물이 등장한다. 바로 엘리야다. 얼마 전까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쳤던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연민에 빠져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 자기연민을 극복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

#### 1.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사모하십시오.

(5절)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삶이 무너져 내릴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이 몰려오는 시기이기도 하다. 사탄은 우리가 자기연민에 사로잡힐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사이를 멀어지게 해서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게 만든다. 엘리야가 자기연민에 빠진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을 놓친 거였다. 이세벨 왕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깐 그만 그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곤경에 처할 때,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다가와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위해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자.

#### 2. 믿음의 지체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이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기연민의 또 한 가지 증상은 고독이다. 엘리야는 호렙산 한 굴을 찾아 그곳으로 숨어들어갔다.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칠천 명을 남겨 놓으셨다는 것이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삶의 의욕이 꺾이고, 외로움으로 삶이 힘들다면,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에 힘쓰라. 교회 공동체를 더욱 가까이 하라. 멀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사탄의 먹이감이 될 뿐이다.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라.

#### 3. 자신의 사명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삶의 위기는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할 때 찾아온다. 엘리야의 자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너는 네 길을 돌이켜...가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허락하신다. 그리하여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엘리야의 후계자를 세우게 하셨다. 자기연민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거두어 주셨는데도, 과거 상처에 연연해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제하여 주셨음을 믿고, 다시 사명을 붙들러라.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연민에 빠질 틈이 없다. 힘들어도 하던 일을 멈추지 말라.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한 삶은 사명을 발견한 사람의 것이다.

#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24일(금)	찬 114장	막 7:1-23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	--------	----------	----------------------------

‘마가는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초대 교회 안에 “음식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던 유대 주의자들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율법에 기록된 음식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깨끗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주어진 하나의 모형이자, 시청각 교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율법이 예고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곧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조항들이 유지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음식 규례를 종결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근원인 악한 생각을 몰아내 우리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물리적 음식은 우리를 더럽히지 못하지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내면의 악한 생각은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죄 없는 음식을 탓하지 말고, 내 안의 죄에 물든 악한 생각들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5일(토)	찬 115장	막 7:24-37	이 말을 하였으니
--------	--------	-----------	-----------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열리라)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분명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단순한 병 고침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때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일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 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며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26일(주일)	찬 430장	막 8:1-13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	--------	----------	--------------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우리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중에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기에,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기진해서 쓰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굶겨 보낼 수 없다고 하시자, 제자들은 광야 어디서 떡을 구해 그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경험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영적 둔감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는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어 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 약 4천 명을 다 먹이시고 일곱 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고 작은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계속해서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크고 작은 필요를 능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 향기로운 예물

## 교회외부 리모델링 현금

**현금 소개 - 434,746,094원, 작성 소개 - 119,760,000원, 합계 - 554,506,094원**

강미자 강순애 권대영(한인숙) 권소열(김순이) 김동윤(이연옥) 김복실 김예화 김정자a 김화순(김용선,황선옥) 박대일(박평란) 박선규(오남희) 박숙희 박종순 소병준(황명옥) 심윤우 안기문(유인자) 우희정(김양숙) 유창웅(김정식) 이미자 이서경 이성수b(조한아) 이인옥(김은현) 이해정 인치경(김영재) 임현성(유정화a) 정경숙 최영란b 한영희 3-8목장 6남전도회 무명

## 심일조 현금

강주연(김재열) 고윤설(박혜란) 고한례 구왕성 권대영(한인숙) 김경순(윤창수) 김덕현(하점순) 김동윤(이연옥) 김미숙(김장식) 김미자b 김민준(이사랑) 김복실 김석순 김수중(김영자b) 김연수 김은현(이인옥) 김재원(길준순) 김정자a 김종명 김중범(양현주) 김화순 라정임 박상엽 박선규(오남희) 박숙희 박용화 박정임(이종대) 박정자b 박종순 배정만 변정순 서성모(이두한) 서숙자 손정숙 신수인 심윤중 안재선 안재택 안중근(국은희,안종경) 오명숙 유창웅(김정식) 윤동근(신영순) 이명국(이용매) 이미자(이정훈) 이상경 이서경 이윤암(김종갑b) 임몽룡(양홍순,임효영) 임현성(유정화a) 전상순(정구영) 전옥순 정고현(김옥자) 정구훈(김순옥b) 정기조(이종옥) 조관희(정수진) 조규연(서정순b) 조화연(김형기) 최태호(정경희) 최현주 한인숙 한일민(고은주) 황명옥 황인숙 무명

## 감사 현금

강은자 고윤설(박혜란) 고한례 구회선(박지숙) 권상희 권영숙 김경덕(이수진a) 김경덕 김동춘(유덕자) 김명순 김복실 김석순 김영천(남정혜) 김옥단 김용기(정윤옥) 김은현(이인옥) 김정순a 김정은(황진석,황민형,황은형) 김정임 김종명(이은진) 김태순 김혜정a 남상천(김선희) 류순례(김병출) 류재은(이종순) 박봉식(김영숙) 박숙희 박충순(오명숙) 배정만(강숙녀) 변정순 성성식(권금자) 손석남 송낙수(송정숙) 송봉우 웰라 신영순 안영세(한혜숙) 안중근(국은희) 안철호(이영숙a) 양길웅 양명자 오상옥(김진남) 오세종(김윤정b) 오연자 유창웅(김정식) 유춘성 윤재룡(송영희) 윤종명(전숙인) 윤창수(김경순) 이덕성(유희숙) 이본구(길준숙) 이수진b 이영진 이용정 이원명(우종선) 이윤성 이은희(최윤호) 이자영 임몽룡(양홍순) 임현성(유정화a) 장영애 전상순 전용주(권연옥) 정고현(김옥자) 정구훈(김순옥b) 정기조(이종옥) 정정이 정태웅(윤정옥) 정홍식(유영란) 조국진(김애란) 조상용 조상용(김혜경) 조정옥 진재주(박향숙) 최국현(이영숙c) 최민지 최재민 최정숙 최진수 최희섭 한순옥 황경숙 황덕순(김기환) 황덕순 황명동(이후남) 무명

## 선교 현금

고윤설(박혜란) 고한례 권대영(한인숙) 권영숙 김덕현(하점순) 김동윤(이연옥) 김복실 김석순 김순옥b 김순이 김영미 김예원 김은현(이인옥) 김정술 김정자a 김중범(양현주) 김중환(김종갑) 김형민(윤혜성,김정인) 김화순 김화순(오명근,오예란,오순기) 라정임 박봉식(김영숙) 박숙희 박정자b 박종순(김은혜) 박종순(오명숙) 배정만 서성모 서숙자 손부영 신수인 양홍순 유창웅(김정식) 윤동근(신영순) 윤성수 유창수(김경순) 이기철a 이남운(한도희) 이명국(이용매) 이미자a(이정훈) 이상경 이서경 이수진a 이영진 이윤암 이은진a(김대용) 이인옥 이종민(윤수진) 임현성(유정화a) 전상순(정구영) 정경숙 정고현(김옥자) 정구훈 정정이 조관희(정수진) 조화연(김형기) 최화단

**꽃꽂이현금** 조영희(박일용) **교회사랑 천사현금** 김은현 이인옥 **추수감사현금** 김정자a 김중범(양현주) **장학현금** 왕은식 윤재룡

**온라인 현금계좌: 신한 131-019-689782 대전중부교회**  
**장학금 후원계좌: 농협 301-0072-3936-51 대전중부교회**

##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20일(월)	찬 505장	막 6:1-13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	--------	----------	--------------------------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범상치 않은 예수님의 실력과 능력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라운 가르침을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게 마련인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리아의 아들’이라 칭하며 예수님의 출생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가난한 목수일 뿐임을 애써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존재, 기껏해야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비범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자, 순종하기보다는 질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으며,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릇된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까?

21일(화)	찬 263장	막 6:14-26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	--------	-----------	------------------

헤롯이 예수님을 가리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데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의 행동에 대해 세례 요한이, 형제의 아내를 빼앗는 것을 금지한 율법을 어긴 것이므로 옳지 않다고 직언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타협 없이 하나님이 정해 두신 의의 기준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올바르게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호한 태도 때문에 목 베임을 당했지만,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 여인의 증오와 한 남자의 체면을 세우는 일에 희생된 듯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의 인생에 대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마 11:11)라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그러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입니다. 오늘 내가 세례 요한처럼 세상을 향해 믿는 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 묵상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22일(수)	찬 569장	막 6:30-44	불쌍히 여기사
--------	--------	-----------	---------

예수님과 제자들은 고된 일정 중에 잠시 쉬기 위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 무엇을 사 먹게 하시라고 제안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까닭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많은 무리를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또다시 주저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한 아이의 도시락만으로 많은 무리를 먹여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십니다. 이처럼 권능의 주님을 힘입어 한계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23일(목)	찬 104장	막 6:45-56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	--------	-----------	-------------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떨어져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건너편 벳새다로 가다가 큰 풍량을 만났는데, 그들을 향해 오시는 주님을 보고도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요동치는 풍량을 잠잠하게 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제자들을 격려하신 말씀은 두려움에 처한 사람을 격려하는 말로 ‘용기를 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믿음의 한계에 갇혀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 내 마음속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상태라면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됩니다. 만유의 주님을 내 작은 틀 안에 가두고 평가하는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용량을 키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달길 소원합니다.